

안전보안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박 정 훈*

〈요 약〉

안전보안관의 역할과 필요성 분석을 통하여 논의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안전보안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활성화 개선방안을 확인하고자 한다.

안전보안관 7명을 최종 선정하여 활동을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반구조화된 면담을 활용하였고 한정된 자료, 부족한 선행연구에 적합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안전보안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국민, 시민, 주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안전사고 감소와 긍정적 결과 도출로 국민의 안녕 된 삶이 영위되어지기 위한 목적을 국가가 원한다면 기관들만의 활용에만 의지하는 것은 안 된다. 둘째,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 활동하는 안전보안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이 환경영역의 위험성 예방을 위한 파악과 사고 발생 수치를 낮추는 역할일 뿐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기위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각인되어야 할 수 있도록 건물주 또는 세입자, 주민들에게 사고방지 예방 활동임을 알리는 홍보가 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법상 학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감시가 가능하도록 법에 따라 공개하고 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도로·공항·항만 등 공공시설을 민간에게도 적극 공개해야 한다. 넷째, 안전보안관은 우선점검 활동의 시작을 통하여 반드시 예방된다는 기대감과 긍정적인 결과들을 내놓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되는 역할과 안전 전문가로 탄생되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매뉴얼의 전략적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제어 : 안전보안관, 안전전문가, 안전사고, 안전위반, 재난

* 가천대학교 경호전공 교수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고찰 III. 연구방법 IV. 안전보안관 면담 분석 결과 V. 결론 및 제언

I. 서 론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대형 화재, 안전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되면서 사회 전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 대응체계 강화 및 사전 예방적 초석을 다지고자 2018년 5월 8일 행정안전부가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시민 안전 전문가 ‘안전 보안관’ 출범시켜 국민 스스로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하고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안전보안관은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하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과 홍보 활동(캠페인)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 별로 최근 빈발하는 화재사고를 비롯해 작업장 안전사고, 교통사고 등 안전 불감 의식 및 안전무시 관행들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하였다.

2018년 미국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US & World Report)가 조사한 세계최고국가순위 설문조사 결과 대한민국은 2017년 보다 한 단계 상승한 22위를 차지했다. 또한 2018년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스위스)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대한민국 종합순위는 63개국 평가대상 중 2017년 보다 2단계 상승한 27위로 평가 되었다. 최단 시간 경제효과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벗어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2019년 소득 3만 불을 넘어섰다.

2018년 한국은행이 6월5일 발표한 '2018년 5월 말 외환보유액'을 보면 3천989억8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세계 9위 수준의 저력을 가진 국가라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적·자연적 재난과 재해 불안감의 공포에서도 벗어나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의 저력을 가진 국가와 국민임을 느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저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속 가까운 현장에서 다양하고 대형화된 재난으로 인한 충격을 반복적으로 접하게 된다면 국민은 정부 대책에 대한 신뢰가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사고의 특성은 사업장의 사업주와 관리자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태도, 안전에 대한 책임감의 부족 등과 같이 안전문화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조은주, 2017).

2019년 4월 22일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LB) 일대 불을 비롯 강원도와 대구, 경상북도 지진발생, 4월 4일 고성·속초 산불 국가재난 사태로 발생된 이재민, 1월 14일 천안 라마다 호텔 화재, 2018년 9월 29일 경기도 안산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과 도로 지반침하, 상도동 유치원 붕괴 최근 2곳의 큰 사고와 2018년 6월 3일 용산 4층 상가 붕괴, 16일 신대방동 상가건물 붕괴, 26일 세종시 주상복합 건물 공사장 화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201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 등 우리 국민은 소름끼치는 안전사고의 직·간접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다. 과거 수많은 안전사고에 정부는 재난이 발생 할 때마다 국가 차원의 보상과 효과적인 재난관리 체계 구축의 대안을 발표하였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국민안전차'를 신설하였다. 이미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이미 존재했음을 무색하게 하는 상황이 반복해서 발생 되고 있다.

대국민 차원의 정부의 대책을 통하여 사전 안전점검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예방은 물론 사상자, 가족뿐 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가슴에 고통을 안겨 주어 잊혀지지 않는 상처로 남게 되는 과오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선진국 역시도 재난, 재해에 의한 안전사고로부터 피해갈 수 없다.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과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에 항공기 동시 다발 자살테러 사건 이후 2018년 5월 4일 하와이 화산폭발, 2018년 11월 현재도 10일 이상 진행되어 우주에서도 관측되는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의 재난과 싸우고 있다.

일본 또한 자연재해로 부터 발생된 것이지만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현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2018년 6월 18일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경험하고 있다. 이를 보면 대한민국에만 한정되어 발생하는 재앙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규모 재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대비책과 재난 발생과 동시에 대책안과 국가수반의 빠른 현장 수습, 예상 진행상황 분석 후 공포, 자국민 보호 시스템 가동 그리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학습과정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이의형, 2015). 이는 개선책과 현실 대응적인 안전사고 예방책을 마련하여 학습화 후 방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시 안전사고와 재해에 대한 대책 단계를 향상하여 재난 발생으로 부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 학습이 필요하다. 재앙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안전지역과 구역이라 해도 안전 예방 반복학습이 행해져야 하는 분명한 필요성이 있다. 안전한 삶을 유지하고자 안전관리규정, 수칙을 부착 지도하고 연구 활동 종사자에게 안전교육,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에 대해 제시하는 안전관리의 노력은 해당 정부 부서만의 영역으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최미현, 2016).

또한 기존의 안전사고 발생 후 추가적 발생 요인 차단 그리고 보상이었다면 지금은 국가와 국민들이 생활 속 안전점검을 솔선수범하여 사전 예방하는 안전관리 방안의 자질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 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정부기관만으로 대응은 역부족이기 때문에 사고로 부터의 안전은 국가정책과 대책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와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안전관련 민간단체와의 협업이 기존 보다 상충되면 안 될 것이다(행정안전부, 2018).

재난안전 55개 단체의 관심과 국민들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역할과 역량을 활성화하여 정부와의 연계와 체계화 된다면 대한민국은 안전사고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지, 정부는 사회 전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 대응체계 강화 및 사전 예방적 초석을 다지고자 각 안전관련 민간단체에 소속된 봉사활동 참여자들은 ‘안전보안관’으로 지원 받아 선발하여 시·군·구 준비된 지역별로 발대식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5월 8일 행정안전부는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 안전

전문가 ‘안전 보안관’ 출범시켜 국민 스스로 주변의 위험요소를 발생 전 찾아 예방 개선하기 위한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7대 항목 단속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른 안전보안관 도입은 결국 대한민국 안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희망에서 출범한 것이므로 행정안전부 관련 출범 근거와 안전지킴이 활동 중인 자율적 민간단체를 검토하고 안전보안관의 역할과 필요성 분석을 통하여 논의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안전보안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활성화 개선방안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안전보안관

안전보안관이란 안전위반 행위를 찾아서 신고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안전점검 활동에 동참하는 등 우리 사회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으로 별도 조직 구성 단체로서의 타 목적의 행사에 동원되어 지는 역할이 아닌 오직 안전보안관의 필요 기능만 집중하여 활동하도록 한다. 안전보안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활동 초기에 명확한 기능을 가지고 운영하며 재난·안전전문가 및 활동가 중심에서 현장 활동에 따른 문제점과 수정사항, 지원 등의 평가를 분석한 후 일반시민으로 확산하여 안전신고 역할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군·구 인구 대비 재난전문가, 안전전문가, 활동가 중심 40명 이상으로 구성한 안전보안관 교육은 국가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 도별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안전보안관 임무 및 역할, 안전무시 관행 소개, 신고활동 관련한 사명감, 윤리의식 현장대응, 우수사례 소개, 안전신문고 사용방법 등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안전보안관 역할

안전무시 관행신고와 지자체별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참여하게 된다.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우선 점검대상이 된 사항은 안전신문고 포털에 안전보안관 참여 방을 개설하여 계절별, 계기별 안전

신고 집중 기간을 운영하여 안전무시관행 신고 내용을 우선 처리한다.

<표 1>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안전무시 관행	현황 및 관련 규정
1. 불법 주·정차	소방차 진입로, 교차로·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설비 등) 5m 이내 주·정차 금지 *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건물 내 피난시설(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포함) 폐쇄 또는 통로에 물건 적치 금지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과속운전	도로(어린이 통학로 포함) 주행(일반도로 편도 1차로 60km/h,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30km/h 이내) * 과속 시 과태료 부과(3~14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시 과태료 가중 부과(5~17만원)
4.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착용	자동차 운행 중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착용 *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 * 동승자가 13세 미만 6만원, 동승자 13세 이상 3만원 부과
5.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건설현장 작업자들 안전모, 안전고리 등 안전장비 착용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흡연 등)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행위 금지 * 불을 피우는 행위(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행위(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인화물질 소지(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별보호구역에서 인화물질 소지(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구명조끼 미착용	레저 또는 조업 활동 시 안전조끼 착용 * 레저시 구명조끼 등 미착용 시(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낚시 어선업자, 선원 등 위반 시(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처: 행정안전부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보안관은 안전무시 관행신고와 지자체별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있다.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7대 관행 우선 점검대상 사항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안전신문고 포털에 안전보안관 참여방을 개설하여 계절별, 계기별 안전신고 집중 기간을 운영하여 안전무시관행 신고 내용을 우선 처리하고 있다. 이는 불법 주·정차, 과속,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 위반행위 집중 단속,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

기 위한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해 안전 분야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과속운전 근절을 위해 고위험 법규 위반자에 대한 처벌 단계적 강화 추진,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개인 보호구 착용교육도 의무화,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산불조사 감식 의무화 추진 및 산불 위험시기 취약지역 입산통제구역 관리도 강화하는 강수를 두었다. 구멍조끼 미착용 등 해상 안전 저해 행위 단속 강화하는 등 계기별·계절별 단속 활동도 강화와 해당 항목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 상향 부과 또한 계획하고 있다.

3. 추진 배경

사회 전반의 불안감 증대는 안전 불감증에서 기인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형 화재,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되었다.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도출되어 있는 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 못한 까닭은 첫째, 안전사고 의식부재에 있다는 것이다. 최근 안전사고는 과거에 시설물·기계·장비의 결함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과는 다르게 의식부재로 인한 사고가 많은 실정이다(위국환, 2017). 안전사고는 나와는 무관하고 나에게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하거나 안전에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대해 위험하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안전 불감증 때문이다. 모든 것이 안전할거라고 생각하며 위험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자세 또한 큰 원인이다. 둘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점검 기반시설, 시민 사회 활동 점검시설, 생활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 점검 등과 더불어 도시주거 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안전관리 전반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자기제로 발전과 정착 되어야 한다. 셋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고 개념 확산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노력보다 혁신적인 관리 및 예방 기법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연철, 2017).

4. 선행연구 분석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전사고 의식부재, 안전

사고 예방 기법 개발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최근 여성 및 청소년과 노약자들에게 안전지대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형 안전프로그램을 구축을 통한 안전보안관시스템 연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현(2018)은 단계동 ‘주민자치형 안전프로그램’인 안전보안관시스템으로 지역 보안관들과 협업과 협력을 통한 ‘여성안심보안관’ ‘여성안심귀가보안관’ ‘마을안전보안관’들의 지역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여성 및 청소년과 노약자 안전지대가 확충되었다. 안전보안관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약 1시간30분씩 도보 순찰을 통하여 주5회 걷기운동 효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기만족도와 자부심이 높아졌다. 지역주민들의 보안관 활동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참여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국환(2017)은 사회 전반의 불안감 증대는 안전 불감증에서 기인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형 화재,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되었다.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도출되어 있는 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 못한 까닭은 안전사고 의식부재에 있다는 것이다. 최근 안전사고는 과거에 시설물·기계·장비의 결함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과는 다르게 의식부재로 인한 사고가 많은 실정을 밝혔다.

김연철(2016)은 안전사고 예방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대중교통 점검 기반시설, 시민 사회 활동 점검시설, 생활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 점검 등과 더불어 도시주거 환경 개선 사업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안전관리 전반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기제로 발전과 정착 되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고 개념 확산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노력보다 혁신적인 관리 및 예방 기법의 개발이 시급함을 밝혔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개선,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주민자치형 안전시스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시민 안전 전문가 양성의 ‘안전 보안관’의 전문성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은 2018년 5월 출범한 안전보안관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담 중심의 질적 접근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안전보안관

의 실태를 확인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가능한 동료의 시각을 가진 구성원으로
서 관찰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료수집 방법인 심층면담
방법 중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이슬지·이주락, 2016). 질적 연구는 주체적
선택을 중시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인간 사회, 문화 현상의 내면적인 측면이 부각된다.

본 연구는 안전보안관 활동을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
의하고자 반구조화된 면담을 활용하였고 한정된 자료, 부족한 선행연구에 적합한 심
층면담을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안전보안관 활동을 파악하고 실태를 분석하여 안전보안관의 활성화 방
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재 경기도 G시와 P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을 참
여자로 선정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은 <표 2>와 같다.

연구자는 안전보안관 활동 시작 시지인 2018년 5월 출범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최초 12명을 선정하였지만 중도 인터뷰 포기와 비 성실 태도 4명을 제외한 후
7명을 최종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와 답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보안
관 1명과 3회씩 동행 허가를 득하여 관찰 할 수 있었다.

<표 2>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연령	거주지역	직업	경력 (개월)	거주 기간 (년)	소속단체
1	김 oo(A)	남	64	G	자영업	11	64	자율방재단
2	박 oo	여	57	G	자영업	11	15	여성단체
3	한 oo	남	57	G	자영업	11	32	안전모니터 봉사단
4	김 oo(B)	남	54	G	자영업	11	21	안전생활 실천연합
5	김 oo(C)	남	59	P	자영업	11	22	안전생활 실천연합
6	최 oo	남	57	P	자영업	11	9	자율방재단
7	이 oo	여	56	P	자영업	11	12	안전모니터 봉사단

2. 조사방법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질문 내용과 같이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하여 직접적인 질문 방식을 논의하고 질문 이후 발생하는 후속 질문은 연구 참여자와 면담 중 자유로운 진행을 위하여 반구조화 심층면접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분석을 위하여 2018년 8월~12월 중 안전보안관 1명과 3회씩 총 27회 브리핑 과정부터 활동 종료까지 동료의 시각으로 동행 참여관찰을 하였으며 안전보안관 활동 종료 후 집단 대화를 녹취,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 기본 질문 내용 *

1. 안전보안관 활동이 지역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안전보안관 활동 중 긍정적 상황 경험이 있습니까?
3. 안전보안관 활동 중 부정적 상황 경험이 있습니까?
4. 안전보안관 활동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IV. 안전보안관 면담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안전보안관 활동 영역 활성화 실태 분석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G시 연구 집단 4명 안전보안관과 P시 연구 집단 3명 안전보안관으로 분리하였고 안전보안관의 면담, 관찰, 수집을 통하여 분석된 자료이다. 다음은 연구대상자들의 면담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1. 안전보안관 활동의 필요성과 긍정적 상황

1) G시 활동 연구대상자

김 ○○(A): 사고가 발생하면 무섭잖아요, 화재나 교통사고를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 누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나……. 나로 인한 사고는 ‘내 잘못이다’

라며 반성하고 후회 하겠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당하는 순간 ‘나라는 뭐하냐’ 단속 좀 미리 해주지…….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더라고. 하지만 저로 인하여 세상이 나아진다면 좋잖아요.

한 oo: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에서 하하는데 뜻을 함께 하고 자 저도 동참했고 동네 한 바퀴 돌면 마음이 뿌듯해져요.

김 oo(A): 우리집 애들이 처음에는 ‘왜 그런걸 하시느냐’ 하더니 지금은 운동 삼아 다니시면 좋겠다 해요. 내가 많이 밝아 졌거든 동네싸움 안 나게 잘하시라면서 말이지.

김 oo(B): 활동을 통하여 나의 생활 터전이 안전해지고 나를 통해 가족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한 oo: 안전보안관 활동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저 역시도 안전무시 관행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도 불편해했죠. ‘우리만 바뀌면 뭐하냐’라고 하더니 요즘은 알아서 안전 벨트 착용하고 과속 안하러 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보다’ 생각하죠.

박 oo: 여기저기에서 사건 사고가 아주 많잖아요.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취지인데 누구라도 나서서 해야지요. 애들 다 크고 남는 게 시간인데 우리 동네를 위해서 활동하면 나도 좋고 동네도 좋아질 거구요.

김 oo(A): 동네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보안관이 된 것이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아 보여?

한 oo: 직장인들이나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이 안전을 위해 다니는 내 모습을 보면 좋게 생각하는지 우리 가게로 와서 물건도 사가고 해요. 예전보다 자주들 오니까 수입도 늘어나고 좋아요. 조금 더 가깝게 인사도 나누고요.

2) P시 활동 연구대상자

김 oo(C): 예전에 비해 도시화가 되고 있어요. 외지 사람들도 많아지고 건물도 들어서고 구경도 할 겸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곳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올리면 해결될 수 있단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좋게 발전 해야지요.

이 oo: 도로 함몰이 되어 있는 곳을 자동차들이 계속 지나가면 구멍이 커져서 차들도 손상되고 타이어 펑크로 인해 사고도 나는데 저희가 찍어서 올리면 바로 시정이 되는 것을 볼 때 가슴이~~~ 막 뛰어요.

최 oo: 우리 동네를 다니면 주민들이 고생한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고맙다고 해주시죠. 이때 보람을 느껴요.

김 oo(C): 제가 노력 하는 만큼 안전선진국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최 oo: 산에 올라가던 중 바위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산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화물질 소지가 안 된다는 설명을 하고 담배불도 끄도록 했죠. 그랬더니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정말 잘하고 계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뛰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안관증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랬더니 궁시렁거리면서 수궁하시더라고요.

2. 안전보안관 활동의 부정적 상황과 개선 사항

1) G시 활동 연구대상자

한 oo: 순수한 마음에서 봉사하는 데요. 뭐라도 받고 특혜도 있고 돈벌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동네 모든 가정이 저로 인해서 불행한 일을 한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한 oo: 파파라치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막 화도 내면서 고함도 지르고……. ‘네가 뭘데 찍냐고’, ‘공무원인척 꼴값 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긴 법적

인 제도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활동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안전보안관 관련 홍보가 필요하기도 해요.

김 oo(A): 비상구 폐쇄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으면 ‘남의 건물에 왜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뭐하는 것이냐 재수 없게 시리…….’라도 하기도 하고 먹살도 잡히고 밀침도 당하고……. 이걸 해야 하나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우리도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거 아니고 그 시간에 쉬면 좋죠. 우리 동네 사람들 안전하게 잘살자고 하는 건데…….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 건지 아직 젊은데 말이야 그리고 애들이 버릇이 없어. 우리 가게에 와서도 반말하고 성질내기도 하구.

김 oo(B): 초창기 보다는 많이 좋아 졌지만 같은 동네 사람들과 인사 나누던 사이가 어색해지기도 했어요. ‘한 동네 사람끼리 너무나 거 아니냐며 불만을 말투와 표정으로 보여주시기도 해요.

한 oo: 치킨집, 호프집이나 술집 건물에 들어가 보면 비상 통로에 소주BOX, 맥주BOX, 쇠로 만들어진 생맥주 통, 포장 BOX들이 많이 높이 적치되어 있어요. 화재라도 발생하면 아찔하죠! 그런데 알고 지내는 사장님들이라(웃음 지으며)……. 진짜 고민 많이 해요.

김 oo(A): ‘암행어사라도 된 줄 착각하느냐’,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냐’, ‘경기 안 좋아 힘든데 왜 더 힘들게 하느냐’, ‘사고도 안 나겠지만 사고라도 난다면 내가 책임지지 않느냐, 당신네 집이나 잘 감시해라’ 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말을 듣지. 그럴 땐 내가 좀 힘들어.

박 oo: 산에서 여럿이 모여서 술 마시고 담배피우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까요? 종이팩 소주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그래도 양심이 있는 것인지 창피해서 인지 모르겠지만 물병에 담아 와서 마시기도 하는데요. 멀리서도 술 냄새, 안주 냄새,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해요. 또 산에서 막걸리하고 멀치 양과 안주 판매도 해요.

김 oo(B): 지하 노래방 같은 경우 그냥 불쑥 들어 갈 순 없고 가족이나 모임 때 들어가서 여기 저기 둘러보면 비상구가 대부분 잠겨 있어요. 또 물건들도 많이 적치되어 있고요. 주인에게 이런저런 규정 사항을 얘기하면 ‘단속하기 위해 손님으로 가장 했냐며 목소리와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박 oo: 안전띠 미착용 적발은 솔직히 힘들어요. 자동차들 썬팅이 짙어서 내부 보기도 힘들고요. 운이 좋아 창문 열고 정차하고 있는 차를 향해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 착용 하세요’라고 하면 ‘뭐래’ 또는 이상한 여자처럼 보이는지 굳은 표정으로 가버리기도 해요.

2) P시 활동 연구대상자

김 oo(C): 우리 동네를 잘 안다고는 해서 좋은 것만은 아녜요. 시정을 위해 사진을 찍다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 건물이라 안전신문고에 올리지 않고 몇 번을 넘어 갔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면 그게 뭐냐는 식의 비난을 받기 싫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지나다가 마주쳐도 못 분척하지요.’

최 oo: 어느 민감한 분은 앞만 지나치려해도 인상을 쓰고 쳐다봐요. 예전에 는 수고 많다고 했던 분들이 사진을 찍히면 어처구니없다는 식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면 사람들의 의식전환이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이 oo: 건설현장을 지나다 보면 안전모 등 안전장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사진 찍기 전 사전에 ‘안전을 위해서 쓰시고 착용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못들은 척 무시를 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반말로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안가등등 막말을 하곤 하죠. 그분들 얼굴이 얼마나 무서운지…….’

최 oo: ‘지금 받고 싶어서가 아녜요. 뭐 솔직히 받으면 좋겠죠’ 얘기 듣기로는 서울 지역은 모자, 피복 등 많지는 안겠지만 실비도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인천 쪽도 그렇다고 하구요. 정부에서는 책정된 예산은 없다 해서 지자체 별로 별도 예산을 만들어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든 것이 우리 동네에도 부자동네가 되어야 하나보다 생각하죠.

이 oo: 다른 지역 안전보안관 얘기인데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해요. 단속사항이 생겨도 웃으면서 시정하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사진도 안 찍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보안관분이 사진을 찍으셨나 봐요. 업주분이 착각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욕을 하시면서 소금을 바가지 채 몸에다 뿌렸다고 하네요. 그분 충격 대단하셨을 거예요. 활동을 못하고 계시고 2년 임기 종료 후 활동 안하신다고 하셨다네요.

김 oo(C): 불법주정차 단속은 솔직히 겁이 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인성이 높아져 사람들이 모여 드는데 불법주정차를 한사람들이 무더기로 화를 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자리를 피한 적이 있어요.

최 oo: 가능하다면 담배꽁초 버리는 거 하고 침 뱉는 것도 항목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안 꺼진 꽁초를 남의 담 넘어 던져 버리고, 정차한 차에 던지는 건 당연한 것 마냥 양심도 없는 것 같구요. 지나가는 자동차는 물론 트럭 화물칸에 던지기도 해요.

이 oo: 조금 큰 건물이나 경비분이 근무하시는 건물에는 출입이 어려워요. 계단과 통로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쌓여져 있어서 둘러보면 ‘여기는 알아서 하고 있다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해요.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설명해도 납득을 못시키고 나와서 시간이 지난 다음 다시 가보면 줄지는 않고 더 쌓여 있어요. 핸드폰을 꺼내면 어떻게 아셨는지 바로 저지당하기도 해요.

연구대상자들은 통계 및 언론보도 분석, 국민 참여를 통한 의견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우선 추진할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하고,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관계기관 합동으로 7대 관행별 근절대책 역할자로서 참여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긍정적인 결과로 변화 될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 속에 안전보안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대상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개선 의지 보다는 자신들의 생활을 억제하여 불편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안관이 지역 내에서 경찰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 현장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과 과태료 처분 권한이 없이 제보자 역할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 때문 인지 업무 효율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은 안전보안관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안전사고 예방이 목표인 안전보안관 활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폭언과 무시로 대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느끼고 있다. 지역 주민간의 오해와 개인감정으로 인한 부정적 이견 발생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점검과 객관적 판단에 의한 명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사·군·구 해당 주민, 민간단체, 재난안전전문가 및 타 지역 활동가 그리고 해당 공무원과의 다양한 정보와 사례, 이점 등에 관한 공유가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정부는 안전사고로 인한 개인의 인명피해는 물론 기업과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감축하면서 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안전 강화에 필요한 국가 역할 확대를 위해 안전수준점검을 추진하였다(Kwon, 2016). 사회적 이슈로 반복되는 불안과 공포를 겪는 것은 국민의 몫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주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안전신문고 및 해당기관에 제보함에 따라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치 및 처리를 이행 해 왔다. 그럼에도 안전사고의 발생 건수는 재발 발생 포함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 안전사고의 발생에 따라 다양한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문제에 안일한 대처로 상황을 근절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 예방 및 근절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여 2018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이후 2018년 5월 출범을 시작되었다.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우선 점검을 위하여 교육을 이수한 안전보안관이 배출되어 점검 활동을 지금 시간에도 실시되고 있다. 현장을 가까이 접하고 있는 주민으로 형성된 안전보안관제를 통하여 안전신고, 안전점검이 추진되어 진 것은 현재까지 안전사고로 인한 공포, 불안 상황에서 미약하게라도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성공적인 안전예방의 믿음이 되기 위하여 희망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안전보안관의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국민, 시민, 주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안전사고 감소와 긍정적 결과 도출로 국민의 안녕 된 삶이 영위되어지기 위한 목적을 국가가 원한다면 기관들만의 활용에만 의지하는 것은 안 된다. 사고로 부터의 안전은 국가정책과 대책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안전보안관 활동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 점검사항과 구성원들의 전문성 향상이 기본인 더욱더 많은 감시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와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안전관련 민간단체와 개인 그리고 안전보안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야만 경제대국인 우리가 안전대국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 활동하는 안전보안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이 환경영역의 위험성 예방을 위한 파악과 사고발생 수치를 낮추는 역할일 뿐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기위한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각인되어야 할 수 있도록 건물주 또는 세입자, 주민들에게 사고방지 예방 활동임을 알리는 홍보가 되어야 한다. 또한 안전보안관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긍정적 활동을 위해서 사고 민원을 접수한 공무원들은 즉각적인 실사를 통하여 참사가 되는 사고를 미연 방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갖추어 져야 한다. 이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 되는 안전사고에 정부기관만으로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며 예방수치를 높일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까닭이기 때문이다.

셋째, 현행법상 학교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감시가 가능하도록 법에 따라 공개하고 정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도로·공항·항만 등 공공시설을 민간에게도 적극 공개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국민생활밀접 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공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 시스템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기본 정보를 비롯하여 내진설계 여부, 건축·소방·전기·가스·승강기 등 각종 안전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포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넷째, 안전보안관은 우선점검 활동의 시작을 통하여 반드시 예방된다는 기대감과 긍정적인 결과들을 내놓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을 갖게 되는 역할과 안전 전문가로 탄생되는 노력이 요구된다. 국민과 주민들은 일시적인 활동 효과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안관들의 단순 참여는 결코 안 될 자세이며

보여주기 식 참여는 안전사고 근절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긍정적 믿음에 위배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안전보안관의 우선 점검활동이 사회 안전문제해결에 기여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시각과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며 집단적 조직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성격을 배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매뉴얼인 전략적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안전보안관 활동은 갓 태어난 신생아와 같다. 전문가적인 기질로 책임을 지는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들이다. 무보수 안전보안관들의 순수한 참여로 나타난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어야 한다. 활동내용과 우수사례 선정을 통하여 합당한 포상과 현장에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비 지급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운영규정과 안전보안관의 근거와 지원, 활동영역 보장, 체계적 운영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정 및 법제정이 요구된다. 사회와 지역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인하여 스스로 사장되는 안전보안관 활동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일정기간 관찰과 활동에 따른 후속 연구 및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연철 (2017).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국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측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현 (2018). 안전보안관시스템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여성안심귀가보안관/마을안전보안관.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규선 (2015).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책임전가의식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국환 (2017).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초등학교 교육 종사자의 안전의식 실태분석.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솔지, 이주락 (2016). 지하철보안관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9, 133-154.
- 이의형 (20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선 방안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용배 (2017). 소방조직의 업무표준 개선방안.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민희 (2012). CPTED를 적용한 범죄예방의 학교 안전 확보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주 (2017). 유치원의 안전문화 실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학제 (2017). 제조업의 안전 분위기와 근로자의 안전행동 분석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현 (2016). 진료실 안전사고에 의한 치과위생사의 외상 경험 실태 및 예방 실천에 관한 연구.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기타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Abstract】

Improvement Measures for Enhancing Professional Safety Sheriff's Specialty

Park, Jeong-H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safety sheriffs and their necessity in order to improve the activation of safety sheriff's professionalism. Seven security sheriffs were finally selected to discuss their activities and discuss ways to improve their effectiveness. We conducted semi - structured interviews and conducted in - depth interviews with limited data and inadequate prior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get the help of citizens, citizens and residents. If the state wishes to reduce the number of safety accidents and bring positive results to the public, it should not rely solely on the utilization of institutions. Second, in order to be a safe sheriff with a positive response from the local residents, the activities of the sheriff's sheriff are not only aimed at preventing risks in the environmental domain and reducing the number of accidents, Publicity should be provided to the landlord, tenant, and residents to inform them that the activity is preventive of accident prevention. Third, under the current law, it is necessary to disclose public facilities such as roads, airports, and harbors to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to monitor school facilities and youth training facilities. Fourth, the safety sheriff is expected to put forward the expectations and positive results of prevention through the beginning of the inspection activities, and the role of the Korean people in becoming psychological stable and efforts to be born as safety experts are requir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crete manual, strategic safety inspection plan.

Keywords: Safety Sheriff, Safety Expert, Safety Accident, Safety Violation, Disaster